

01 교회소식

대자연 속에 펼쳐진 장년들의 축제

무주 덕유산리조트 대자연 속에서 느끼는 하나님 권능과 사랑의 터치, 2012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가 지난 8월 초 있었다.

02 생명의 말씀

영적인 사랑의 중요성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과 믿음이 있으며 구제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참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03 포커스

젊은이들의 향연, 6개 연합 하계수련회

청년·대학·가나안·바울·마리아·빛과소금선교회 만민의 젊은이들이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서 하계수련회를 가졌다.

04 간증

“수련회 참석하려고 먼 나라에서 왔어요”

책자와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의 말씀에 은혜받고 수련회에 참석한 싱가포르 류용언, 스위스 선들러 성도 간증.

# 만민뉴스

제546호 2012년 8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영’이신 하나님 마음 느끼는 체험 현장! 2012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 전국 및 해외 23개국에서 참가



체육대회



잠자리 체험



캠프파이어

지난 8월 6일,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가 전북 무주 덕유산리조트 점핑파크에서 열렸다. 성도들은 2박 3일간 수련회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 마음에 대해 배우며 믿음을 키웠다.

서울, 대전, 부산, 광주, 구미, 마산, 춘천, 제주 등 전국뿐 아니라 미국, 독일, 스위스, 프랑스, 케냐, 일본, 중국, 대만 등 해외 23개국의 목회자와 성도 300여 명이 참가해 국제적인 행사가 됐다. 특히 태국, 말레이시아, 파로제도에서 농아인 50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첫째 날 교육에서 강사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은 ‘아름다운 마음 만들기’(고후 2:14-16)라는 제목으로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전했다. “죄와 악, 비진리, 어둠 등 마음의 찌꺼기를 빼내고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려면 사모함이 있어야 하며 결

단하고 노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불같은 기도로 자신을 변화시키되 인내가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어 총명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 후 이뤄진 ‘기사 체험’ 때에는 구름으로 뒤덮인 주변과는 달리 교육장소인 점핑파크 상공만 구름이 걷혀 밤하늘에 촘촘히 박힌 무수한 별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개의 유성과 춤추는 별 등을 보며 자연현상을 통해 깨닫게 해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대대교구 대항 체육대회인 만큼 성도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 1대대교구, 2대대교구, 3대대교구, 지교회와 해외 성도 이상 총 4개 팀이 경합을 벌였다.

입장식을 시작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개회선언과 기도 후에 이수진 목사(총

괄대교구장)의 시축(始蹴)이 있었다. 경기는 10종목(공 던져 넣기, 100미터 달리기, 오래 달리기, 단체줄넘기, 승부차기, 축구, 배구, 애드벌룬 굴리기, 줄다리기, 릴레이)으로 총 14개의 금메달을 놓고 진행됐다.

매 경기마다 박진감 넘치는 대결이 펼쳐졌으며, 각 팀의 열띤 응원전은 체육대회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다. 경기 결과 2대대교구가 금메달 7개로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으며, 2대대교구 강성희, 차수향 집사가 각각 남녀 MVP의 영광을 안았다.

같은 날 저녁 교육에서는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가 ‘영’(요 4:24)이라는 제목으로 영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 자체이며 사랑임을 전했다. “가족, 일가 친척,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을 대할 때 얼마나 참아주고 이해하며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기는지, 또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고 선과 사랑이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면 영의 마음을 이룬 정도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말씀 증거 후에는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전국 남녀선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가 인도한 캠프파이어에서는 전국 소망이 넘치는 찬양과 불꽃놀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 교회는 물론 전국 및 해외 곳곳에서 함께한 성도들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동의 현장이었다.

수련회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대로 시종 시원한 날씨 속에 진행됐다. 올해 역시 무수한 잠자리가 성도들의 얼굴과 손, 어깨 등에 날아와 앉아 함께하시는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감사와 기쁨, 전국 소망이 넘쳤던 수련회를 통해 은혜와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 영적인 사랑의 중요성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1-3)

고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구나 천사처럼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말을 하면 얼마나 환황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유창하게 방언을 하고 천사처럼 아름답게 말한다 해도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시끄러운 쟁과리와 같습니다. 구리가 소리를 낸다는 것은 속이 비었거나 가볍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도 영적인 사랑이 없으면 쪽정리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닮은 참 자녀가 될 때야 인간을 경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알곡으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무슨 말로 상대에게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진리로 나오게 할까?’ 하며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만일 율법대로 하면 예수님을 사랑이 없다 할 것이고,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무시한다고 정죄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그들에게 해당되는 죄목을 하나하나 써 내려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목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 자리를 떠났고 여인만 남았지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랑이 담긴 말은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무조건 상대를 설득시키려 하거나 지적하며 고치려 든다면, 설령 그 말이 백 번 옳아도 상대를 변화시키거나 참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무슨 말을 할 때 내 의와 틀 속에 하지는 않는지, 그 말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 2.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일반적으로 앞일을 짐작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목적을 두고 성령의 감동 속에 하나님 마음을 전달받아 앞일을 말하거나 예측하

는 것입니다. 사람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지요(벧후 1:21). 이런 예언의 은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결 되지 않으면 주시지 않지요.

그런데 사랑장에서 말하는 ‘예언하는 능’이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차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은 휴거돼 7년 혼인 잔치에 들어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7년 환난을 겪고 백보좌 대심판 후 지옥에 가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비밀’이란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 곧 십자가의 도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섭리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범죄 해 사망으로 갈 것을 아시고 만세 전에 구세주가 되실 예수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비밀로 붙이셨지요. 구원의 섭리가 알려지면 원수 마귀가 방해해 성취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아담의 범죄로 넘겨받은 권세를 영원히 가질 줄 알고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 도리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됐지요. 이같은 놀라운 비밀을 알아도 영적인 사랑이 없으므로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식’이란 단지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담긴 진리의 지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면 만나고 체험해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는 데 그칠 뿐, 그 지식을 남을 판단 정죄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지요. 그러니 영적인 사랑이 없는 지식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잠시 따라 걸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성령을 받거나 마음의 할례를 한 것도 아니므로 영적

인 사랑이 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생명의 위협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했지요.

이처럼 체험적인 신앙으로 믿음은 성장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랑은 죄를 버리려는 노력과 헌신, 희생이 따를 때 임합니다. 그렇다고 믿음과 사랑이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지요.

## 3.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외식하며 구제하는 사람은 칭찬받을수록 마음이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니 결국 자신에게 해만 되지요. 그러나 사랑에서 우리나라는 구제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상관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축복과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마 6:3-4).

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것은 완전히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희생은 사랑을 전제로 하지만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즉 실컷 수고해 놓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정성, 시간, 물질을 다해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열심 내지 않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쩔 저럴 수 있지?’ 판단합니다. 이런 마음이면 자신도 힘들고 주변 사람과 화평을 깨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사랑 없는 희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는 중심에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요, 내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 안에 영적인 사랑이 가득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던 묵묵히 주를 바라보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초가 자신의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여러분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영적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영적인 사랑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식주가 해결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도 사랑이 없으면 삶의 희망도, 살아갈 의욕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13에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천사같이 아름답게 말하고 예언하는 능과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고 구제하며 희생한다 해도 그 모든 행함이 온전케 되려면 참된 사랑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1.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여기서 ‘사람의 방언’이란 성령의 은사 중 하나인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지구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문명이나 지식이 언어에 의해 체계화되고 전수되는 만큼 언어의 힘은 참으로 큼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사랑을 설득하거나 감동을 주지요.

이처럼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 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 교회버스** (교회 차량 /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단지역(번 출구) /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번 출구) / 도보 10분
- 시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역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663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 5536, 5615(편도), 5616(반대편 편도)

만민중앙교회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주일 저녁예배	3: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대학·가나안·청년·바울·마리아]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시·일월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070-8240-5609  
02) 851-3845 (예금주 위성영)

**국민은행** 362-21-0201-106  
**우리은행** 072-255732-02-201  
**농협** 100072-52-061722  
**우체국** 012419-02-047269



# 믿음, 소망, 사랑으로 쓴 젊음의 노트 6개 연합 하계수련회



지난 8월 6일 강원도 횡성 성우리조트에 만민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3박 4일간 진행된 6개 연합 하계수련회에 참가한 청년·대학·가나안·바울·마리아·빛과소금선교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끼며 '나도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더해졌다.



### 【 육의 무익함을 철저히 깨닫게 해 준 교육 】

첫째 날과 셋째 날, 강사 이수진 목사와 이희진 목사는 각각 '육과 영'(요 6:63), '영'(요 4:2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를 통해 육의 무익함에 대해 깨닫고 선과 사랑 자체인 하나님 마음 곧 '영'에 대해 느끼는 시간이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바라보며 더욱 힘차게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것을 다짐했다.



### 【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 된 성령충만기도회 】

둘째 날, 강사 이복님 만민기도원 원장은 '아름다운 마음 만들기'(고후 2:14~16)라는 말씀을 통해 사모함과 결단, 인내와 부단한 노력으로 영의 마음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찬양과 기도, 십자가와 진주문 체험을 통해 주님 사랑을 되새기며,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 진주문 앞에 이를 때의 감동을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뒤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는 충만한 찬양이 이어졌다.



### 【 주를 향한 젊음의 열정, 체육대회 그리고 기사 체험 】

체육대회는 구름으로 태양이 가려진 시원한 날씨 속에 선교회 대항으로 진행됐다. 100미터 달리기, 릴레이, 오래 달리기, 공 넣기, 승부차기, 응원전 등 모든 경기에서 팽팽한 접전이 벌어졌다. 우승은 대학선교회, 준우승은 바울·마리아선교회가 차지했다. 남녀 MVP는 우승팀인 대학선교회의 고두성 형제와 김슬기 자매에게, 응원상은 바울·마리아선교회로 돌아갔다. 오래 달리기에서 1등을 차지한 한지민 전도인과 박은옥 집사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편 '잠자리 체험' 행사 시 잠자리들이 회원들의 몸에 날아와 앉아 하나님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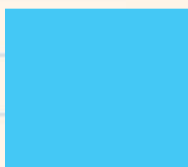
#### 체육대회 오래 달리기\_여사부 특별상



“잘 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요”

박은옥 집사 (마리아선교회)

한 달간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오래 달리기 연습을 했습니다. 우승해서 소속된 선교회에 힘이 되어 한다는 막중한 부담도 있었지요. 경기 중 힘든 고비가 있었지만 '1등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는 목표를 떠올렸습니다. 이렇게 이겨내고 결국 목표한 것을 이뤄내는 체험을 통해 저는 영적인 것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요. 연습할 때 함께하며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 주님께 드리는 찬양의 러브레터~ 캠프파이어 】

"진리를 행하세 기쁨과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젊음을, 주께 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주여 여기 있나이다~" 이희진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캠프파이어. 주님께 사랑의 하트를 만들어 보이는가 하면 회원들이 서로 손을 맞잡고 뛰며 찬양하는 동안 사랑도 은혜도 깊어갔다. 또한 7년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날을 그려보며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신속히 나올 것을 다짐했다. 이어진 불꽃놀이에서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폭죽을 보며 자녀들과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그려보았다.



GCN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방송, GCN!

August Programming Guide  
주요프로그램 안내!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십자가의 도 12-16  
- 선 1-5  
-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 4-5  
- 헛되고 헛되니 1-3  
- 일곱교회 4-8

GCN TV 설교  
- 이수진 목사의 '팔복 1-4'  
- 정구영 목사의 '십자가의 도 3-6', 푸른초장, 설만한 물가  
- 이희진 목사의 '천국과 지옥'  
- 이미경 목사의 '같은 마음, 같은 뜻'

찬양 프로그램  
- GCN 파워프레이즈2 14-18  
GCN 특선명화  
- 퀘바디스 1부/2부

24시간 연중무휴 위성, 인터넷, 인터넷TV 방송 및 A/S 문의 1577-2073



저는 만민중앙교회 '2012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고자 남편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새로운 신앙의 눈이 뜨이는 계기가 됐지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오랫동안 주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한단다라며 위로하시는 주님 마음이 느껴지면서 그 사랑이 깨우쳐졌지요. 그 뒤 저는 많은 것이 변했고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사에 입사해 5년간 스튜어디스로 근무했지요.

2007년, 친구 황핑핑 선교사(전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로부터 이재록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 『천국』, 『지옥』을 받았습니다. 책을 읽고 구원의 섭리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지요. 『만민』 잡지에 실린 안식일과 '선'에 대한 말씀에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재록 목사님 설교 말씀은 마음을 성결케 하며 감동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 나라의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이처럼 성결을 강조하는 말씀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성결 복음을 들은 뒤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진정 하나님 자녀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깨우쳤지요.

또한 황핑핑 선교사는 갖가지 하나님 역



##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어요”

뤼용언 (싱가포르)

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적적인 성령의 역사였지요. 특히 마라의 쓴 물이 단 물이 된 것처럼(출 15:25) 이재록 목사님 기도로 바닷가의 짠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한 무안단물역사의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하나님 권능이 담긴 이 물을 믿음으로 마시고 바르는 사람은 갖가지 질병이 치료

되고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겠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해수어와 담수어가 공존하는 무안단물 수족관에 관해 말해 줄 때에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저도 무안단물터를 방문해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 만민 하계수련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8월 3일, 드디어 저희 부부는 서울 만민중앙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드려지는 금요일아침예배에 참석했지요.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요, 거룩하고 웅장했습니다. 성가대 찬양과 너시오편트라 연주, 예능팀 특송은 마치 천국을 연상케 했지요. 성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고 너무 행복해 보였습니다. 또한 저희 외에도 수련회 참석을 위해 많은 해외 성도가 방문했는데, 각 사람에게 대한 교회의 세심한 배려와 성도들의 섬김은 감동적이었습니다.

8월 6일, 마침내 수련회가 시작됐습니다. 은혜와 감동이 넘치는 모든 일정은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한여름임에도 날씨는 시원했고,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몸에 앉고 춤추는 별을 보는 등 신기한 체험을 했지요.

8월 8일에는 무안단물터를 방문했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것처럼 바닷가의 짠물이 단물로 변한 기적의 현장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습니다.

저희는 한국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뜻을 좇아 살아가면 참 행복과 이 땅에서의 축복은 물론,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자녀 된 특권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 “성결 복음으로 유럽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굴바하르 힌들러 (스위스)



2011년 11월, 저는 TBN 러시아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 프로그램이었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는 이재록 목사님 얼굴에서 빛이 났습니다. 주변은 그대로인데 목사님 얼굴에만 빛이 났지요.

이때부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게 됐고, 설교 말씀에 꼭 빠졌습니다. '성결 돼야 한다. 불같이 기도해야 한다.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금식해야 한다' 등 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처음 듣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던 세계 성결 복음은 목마름을 채워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TV 프로그램만이 아닌 만민중앙교회 웹사이트를 찾아 그곳에서 하루 10시간 정도 이재록 목사님 설교를 청취했습니다.

12월 초, 그날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께서 마음을 강하게 주관하셨습니다. '비행기로 11시간 정도면 한국에 갈 수 있는데 신앙 성장을 위해 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나는 것이었지

요. 수소문 끝에 12월 말, 한국을 방문해 만민중앙교회에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1년 동안이나 저를 고통스럽게 한 허리 통증도 이재록 목사님 기도를 받은 뒤 깨끗이 사라졌지요.

스위스로 돌아온 저는 성결을 위해 금식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비진리의 마음이 발견되니 마음의 싸움이 시작됐지만 이 목사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지옥』 등을 읽으면서 믿음을 갖게 됐지요. 특히 『천국』 책은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2012년 7월 8일, 저는 아들과 함께 만민중앙교회를 두 번째 방문했습니다. 한 달간 머무르면서 다니엘철야 기도회를 참석해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고, 성결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깨닫게 됐지요.

8월 초, 수련회 참석을 위해 남편(유릭 힌들러)도 한국에 왔습니다. 6일, 저희 가족은 '만민 남녀선교회 하계수련회'에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했지요. 남편은 조직적으로 훌륭하게

준비된 수련회 행사와 즐겁게 찬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성도들의 모습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몸에 잠자리들이 날아와 앉는 모습에 신기해했지요. 또한 제게 "왜 그토록 한국에 오고 싶어 했는지 알겠다."며 "성령 충만하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만민중앙교회와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과 성결 복음을 만난 후 제 삶은 놀라게 변화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스위스로 돌아가 성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잠들어 있는 유럽 교회들을 이 축복의 말씀으로 깨워 신앙을 회복하게 하고 싶습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부암 1동 275-77 ☎070-8223-4191~4, 010-9818-983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복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새대만민교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1동 1281 지하 ☎070-8764-3000, 010-7703-42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동림동 909-4 시청 강 건너편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림동 118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372-1002, 010-2290-7779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각화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197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룡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서랑만민교회 충북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956 ☎043)211-1955,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무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미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말양만민교회 경남 말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심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909-10호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영로 28번지 중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군포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1(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강남지성전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0-5 ☎02)556-8517~8, 010-7223-2073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수유 3동 188-26 ☎02)995-9951, 011-1717-1217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월피동 508-1 ☎031)485-9143, 017-366-5914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1-287-7369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7720-7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367-4 ☎010-6355-1928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9-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2290-185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3330-3172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7720-7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2213-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동 465-4 ☎031)635-9103, 010-2718-7458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2251-3149